

HYUNDAI E&C TODAY

Vol 405

2021 / 9 / 15 WED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지하 80m를 가로지르는 국내 도심지 최장 대심도 터널

9월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하루 최대 12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가 새롭게 탈바꿈했다. 지난 9월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개통과 함께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까지 통행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구 독산동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나들목을 지하 80m 깊이에서 직통으로 잇는 10.33km의 대심도 지하터널. 현대건설은 2016년 3월 첫 삽을 뜬 지 5년6개월 만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은 1공구는 성산대교 도입부에서 약 지하 5.2km에 달하는 도로 구간(지상부토공·개착 구간 1km, 터널 구간 4.194km)으로, 인공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어 공사 초기부터 난공사의 연속이었다. 현대건설은 도심지 현장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밀폐 공간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는 한편,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로 도로 운영 중 발생한 미세먼지·유해 가스를 터널 내부에서 직접 정화할 수 있는 '바이패스'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다. 서울 서남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주춧돌이자 국내 토목사에 길이 남을 '국내 도심지 최장' 대심도 터널의 대장정을 이번 호 <사보신문>에서 따라가 봤다. > 관련기사 6, 7면

The Seobu Urban Expressway, notorious for chronic congestion, has gone through a transformation: The opening of the Seobu Underground Road will considerably decrease the travel time between the southern end of the Seongsan Bridge and the entry to the Seohaean Expressway. The 10.33-kilometer urban underground tunnel 80 meters deep was opened to the public on September 1 to connect the Seongsan Bridge in Yangpyeong-dong and the Geumcheon IC in Geumcheon-gu. After starting off the construction in March 2016,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d it in five years and six months. Korea's foremost builder, in charge of section 1, introduced the IoT entry management system for closed space, the first of its kind among urban construction sites, and also applied the "bypass" ventilation system to remove fine dust and harmful gases directly inside the tunnel, based on the company's technological prowess and knowhow.

> Continued on page 6, 7

현대건설

❤️ 🔍 📄
🔖

현대건설이 #어린이교통안전릴레이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아래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 1단 멈춤!
- 2쪽 저쪽!
- 3초 동안!
- 4고 예방!

🚦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앞으로도 현대건설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은 현대건설 운영진 사장님께서
 현대로템(@hyundai_rotem) 이용배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동참했습니다.
 다음 참여자로 현대제철(@hyundaisteel.official) 안동일 사장님을 추천합니다.

🏠 🔍 📺 🛒 👤



서부간선지하도로

UNLIMITED HYUNDAI E&C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TOPIC

아무튼 퇴근!
평화로운 우리의 'OFF LIFE'

CULTURE

마음이 가까워지는
센스 가득 추석 선물

TRAVEL

한가위엔 한가하게
걸어서 고궁 속으로

Hyundai E&C builds landmark in Singapore

Our company wins order to redevelop Shaw Tower

Our company has been awarded an order valued at 202 million dollars, or approximately 240 billion won, to redevelop Shaw Tower in Singapore.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designed to transform Shaw Tower whos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1975 into a 32-storey high-end office building and a six-storey community facility. Construction will last for 38 months.

Our company will seek to build convenient facilities, community facilities and an outdoor amphitheater in harmony with busi-

ness space. To satisfy the Singapore’s vision toward the “car-free” city, connectivity with passenger paths, the neighboring government offices and the nearby MRT (Mass Rapid Transit) station will be maximized.

In redeveloping Shaw Tower, our company will focus on use of eco-friendly energy and reduction in energy consumption with the aim to pursue the WELL Cer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WELL Building Institute and the BCA Green Mark Scheme of the Singapore’s 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 The location of Shaw Tower is well known for

connecting Marina District, the central area of the city state, and Bugis Street lined with shops targeting younger customers.

Meanwhile, since our company entered the Singaporean market by conducting the Pulau Tekong reclamation project in 1981, we have obtained a total of 91 projects worth 15.2 billion dollars including the Pasir Panjang Terminal project and the Marina South complex development project. Currently, our company is working on 11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projects valued at 2.1 billion dollars.



현대건설, 싱가포르 랜드마크 짓는다... 2400억원 규모 Shaw Tower 재개발 수주

지상 32층 규모의 고급 오피스 및 편의시설 신축,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8개월

우리 회사가 최근 2억200만 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Shaw Tower 재개발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1975년 완공된 Shaw Tower를 지상 32층의 고급 오피스빌딩과 지상 6층의 근린시설(포디움)로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연면적 6만 4728㎡,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8개월이

다. 건물은 싱가포르 중심지인 마리나 지역과 20~30대가 주축을 이루는 부지 지역을 연결하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우리 회사는 건물의 주시설인 업무 공간에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 야외 정원 극장 등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없

는 도시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비전에 발맞춰 보행자 통로와 주변 관공서, 도심고속철도(MRT)역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한다. 이 밖에 새롭게 탈바꿈

할 Shaw Tower는 친환경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초점을 두고 ‘인태내셔널 벨 빌딩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WELL Building Institute)’ 인증과

싱가포르 건축청의 ‘그린마크’ 인증을 목표로 건설된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81년 ‘풀라우 테콩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후 ‘파시르 판장 터미널 공사’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공사’ 등 총 91건, 152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는 토목·건축 총 11개

현장, 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이래 굴뚝한 공사들을 준공하며 쌓아 온 신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룩한 쾌거”며 “향후 Shaw Tower가 싱가포르의 상업·문화 교두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undai E&C and Samsung C&T Consortium obtains remodeling project

A consortium consisting of Hyundai E&C and Samsung C&T has won an order to remodel Kumho Byeoksan Apartment on August 28. The remodeling project will aim to turn Kumho Byeoksan Apartment into 21 apartment buildings of 21 floors above ground and five basement levels.



The new apartment complex is expected to offer a total of 1,963 household units. The Hyundai E&C and Samsung C&T consortium will

reflect the latest housing trends by providing efficient floor plans, cafeterias and private study rooms.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지난 8월 28일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2001년 준공한 금호벽산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원 8만4501㎡ 부지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1707세대)으로, 주택 성능 개선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21층(별동 신실부 23층)의 공동주택 21개 동, 1963세대로 탈바꿈한다.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최신 트렌

드를 담은 효율적인 평면 구성과 스카이 커뮤니티, 카페테리아, 프라이빗 스티디룸 등을 통해 단지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차별화된 경관력을 보유하고 있는 양사의 조정된 디자인 역량을 발휘해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어 총 6500억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고 있다. 현재까지 도시정비 분야에서 3년 연속 2주율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H Public Art Award 2021 opens

Our company will hold the H Public Art Award 2021 for domestic artists. The Public Art Award 2021, co-hosted by Hyundai E&C and Hyundai Livart, will give capable Korean artists an opportunity to create public artworks to be used for multi-family housing. Any artists who participated in public art installation more than one time can apply for the event independently or on a team. A total of 12 artworks selected will be exhibited at the special exhibition of the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2021 between November 30 and



December 7. Among them, four winners will be installed in Hillstate apartment complexes. For more details, visit the homepage at www.h-publicart.com.

미술작품 공모전 ‘H 퍼블릭 아트 어워드 2021’ 개최

우리 회사가 국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H 퍼블릭 아트 어워드 2021’ 공모전을 개최한다.

‘H 퍼블릭 아트 어워드 2021’은 역량 있는 국내 미술가를 발굴하고, 공동주택 내 공공미술 설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리바트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공공미술 설치(1회 이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작가(개인 또는 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publicar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심사를 통과한 12개의 작품들은 ‘서울 국제조각페스타2021 특별전(예술의 전당)’에

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시한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4개의 작품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힐스테이트 흥은 포레스트’ ‘힐스테이트 부평’ ‘갑천 트리폴시드 힐스테이트’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준 높은 국내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힐스테이트 고객들에게 격이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아파트의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dai Hillstate takes 2021 KOVO Cup

Suwon Hyundai E&C Hillstate has reclaimed the champion title by winning the Korean Volleyball Federation (KOVO) Cup.

Hillstate took a confident win by beating GS Caltex (25-23, 25-23, 28-26), winning the final of the women’s KOVO Cup at Uijeongbu Gymnasium in Gyeonggi-do on August 29 to claim the club’s fourth cup title. Suwon Hyundai E&C Hillstate last won the KOVO Cup in 2019.

On that day, Jeong Ji-yun led the scoring for Hillstate with 17 points, followed by Yang Hyo-jin with 12 points and Hwang Min-kyeong



with 11. Middle blocker Lee Da-hyun scored seven points. Jeong was named MVP for the game while Lee

won the Rising Star award. The win is also attributable partly to the leadership of new manager Kang



Sung-hyung. Meanwhile, the V League season for this year is scheduled to open on

October 16 where seven women’s volleyball teams will play a total of 36 matches.

2021 KOVO컵 프로배구대회 우승 ... ‘V리그’ 승리를 향한 힘찬 출발

현대건설배구단, 통상 4번째 코보컵 우승 ... MVP는 결승전에서 17점 기록한 정지윤 선수

현대건설배구단이 한국배구연맹(KOVO) 컵대회 정상탈환에 성공했다. 현대건설배구단은 지난 8월 29일 열린 2021 의정부·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GS칼텍스를 3-0(25-23 25-23 28-26)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2019년 우승 이후 2년 만에 컵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통상 4번째 우승의 쾌거를 거뒀다. 올 시즌 현대건설배구단은 신구 세대의 조화로 조직력을 극대화했다. 1세트 교체 투입된 정지윤이 레프트와 라이트를 오가며 전천후 활약했고, 양효진과 이다현의 속

공, 블로킹, 서브에이스가 터지며 점수를 벌였다. 이날 정지윤은 양팀 통틀어 최다인 17점을 올렸고, 양효진과 황민경이 각각 12점, 11점을 기록했다. 센터 이다현도 7득점으로 거듭났다. 정지윤은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뽑는 투표에서 27표를 획득하며

MVP의 영예를 안았다. 라이징스타상은 이다현 선수에게 돌아갔다. 강성형 감독은 사령탑 부임 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강 감독은 “코보컵에서 보여준 끈끈한 수비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10월 개막하는 V리그에서도 현대건설 배구단의 강한 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21-2022 V리그는 10월 16일 개막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0월 17일 IBK기업은행과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21-22 시즌 대장정에 돌입한다.

GROUP NEWS

Hyundai Motor Group presents its vision to popularize hydrogen by 2040 at Hydrogen Wave forum

Hyundai Motor Group (the Group) has set out its vision for hydrogen energy and a global hydrogen society.

At the Hydrogen Wave global online forum held on September 9, the Group presented its plans to popularize hydrogen by 2040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mobility solutions in transportation and other industrial sectors. Further underscoring its pioneering commitment to clean sustainable energy for all types of mobility, the Group unveiled unprecedented plans that will see the electrification of all new commercial vehicle models - featuring fuel cell electric or battery electric powertrains,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fuel cell systems - to all models by 2028. The daring strategy will put the Group at the vanguard of the commercial vehicle sector, in the process helping to reshape the industry and realize a sustainable clean future.

Representing the Group’s plans for a new ‘wave’ of hydrogen-based products and technologies that advances the journey toward a hydrogen society, the Hydrogen Wave activities kicked off on September 9 with an online presentation led by Chairman of the Group, Euisun Chung, and other senior executives. The team outlined the Group’s future hydro-

gen strategy for fuel cell systems and fuel cell-based solutions for mobility and other areas.



The Group’s central target to fully apply its commercial vehicle lineup with fuel cells by 2028 will make it the first global automaker to realize such ambitions for commercial vehi-

cle transportation and will further help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true sustainable mobility. “Hyundai Motor Group’s vision is to apply hydrogen energy in all areas of life and industry such as our homes, workplaces and factories. The goal is to make hydrogen readily used for everyone, everything, and everywhere,” said Chairman Chung at the Hydrogen Wave online global forum. “We want to offer practical solu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and with these breakthroughs, we aim to help foster a world-wide Hydrogen Society by 2040.”

The online global forum will be followed by a physical “HydroVILLE” exhibition, at which the newly introduced applications and con-

cepts will be presented. Inspired by the potential for clean hydrogen, the HydroVILLE exhibition features various fuel cell concepts for future mobility and power generation.

Since the development of its first FCEV in 1998, the Group has been preparing for the future of hydrogen. In 2013, the Tucson FCEV (ix35 Fuel Cell) was introduced, opening the door to the mass production of FCEVs. Then, in 2018, the company launched the next-generation fuel cell SUV, NEXO, and the world’s first heavy-duty fuel cell truck, XCIENT Fuel Cell, in 2020.

Now, the Group is backing hydrogen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and reducing society’s dependence on fossil fuels.

MOVIE

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 action, adventure, fantasy / 132 mins.



Wenwu rules over his kingdoms for centuries with a mystical weapon called the ten rings which grants the owner immortality and immense power. He forms his own army, named after his weapon, which becomes one of the most-feared crime organizations in the world.

Shang-Chi, Wenwu’s son, is trained in martial arts from a young age to be an assassin and success his father as the leader of the army. Shang-Chi, however, escapes his father’s wrath and flees to San Francisco in hopes of leading a normal life. Shang-Chi is leading a pretty normal life as Shaun, working as a hotel valet when Wenwu’s men come to find him and Shang-Chi instinctively realizes that he can no longer avoid his father.

The film marks the beginning of Phase 4 in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and the first Marvel film with an Asian actor and predominantly Asian cast. BY KOREA JOONGANG DAILY

아무튼 퇴근!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의 'OFF LIFE'

컬러로 채우는 Beautiful Life

이은주 연구원(건축주택연구팀)



퇴근 후 저는 컬러링 북과 60가지 색의 수채화 색연필을 꺼냅니다. 마음에 드는 밑그림을 골라 집중해서 컬러를 채우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요. 새하얀 바탕에 다양한 컬러로 활기를 불어넣으면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힘들었던 생각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림 하나를 완성하고 나면 뿌듯함도 얻을 수 있어요!



퇴근 특징 중일 밀려드는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회사 생활. 고군분투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근무중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또 다른 즐거움이 나를 기다린다. 누군가는 차분하게, 누군가는 맘 풀리며 만족감 가득 채우는 시간. 우리 사무들이 직접 자신의 퇴근 라이프와 그에 관한 꿀팁을 소개했다. 누군가의 OFF엔 공감하고, 누군가의 OFF는 따라해보고 좋을, "오 마이 퇴근 라이프~". 글:정리=이진우

이은주 연구원이 추천하는 컬러링북 & 팁

<물들이다>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다른 컬러링 북에 비해 종이 두께와 색연필, 사인펜, 물감 등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Dear, Lover>



예쁜 예쁜 포켓 사이즈 소자가 간편하게 페, 공원 등 어디든 컬러링의 매력에 빠질 수 있어요. 완성한 그림을 뜯어 업서로, 인타이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수채화 색연필 저는 유성 색연필보다 색상이 부드러운 수채화 색연필을 선호해 파버카스텔 수채화 색연필 60색을 사용합니다. 색연필로 칠하다 물을 묻히면 수채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색이 많을수록 좋지 만 120색부터는 전문가용으로 가격이 비싸니 60색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밝은 색부터 칠하기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하고 밝은 색부터 칠하는 게 좋아요. 섬세한 부분을 칠할 때는 색연필을 깎아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번지지 않게 신경 쓸수록 더 예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격증 내장 모드 ON!

이광보 매니저(일스타이트 등인 센터)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을 알차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현장 근무하면서 10년 정도 꾸준히 노력해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골삭기·지게차·기중기·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대형트레일러면허 및 대형구난차면허(특수), 드론 1종 자격증 등을 취득했어요. 일정상 멀리 이동하기 힘든 저녁엔 이론 공부를 하고, 실습이 필요한 활동은 주말을 활용했죠. 요즘은 드론교관자격증 취득을 위해 주말 새벽마다 드론 비행장으로 향합니다. 미지않은 미래에 현장에서 드론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 같아 미리 준비 중이에요. 업무에 도움되는 공부를 끊임없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광보 매니저가 전하는 열정맨의 룩권 팁

체력 관리가 최우선 워니워니 해도 운동이 최고 아닐까요? 일주일에 두 번은 태권도, 두 번은 검도장에 가서 우량차게 기합을 넣으며 맘을 풀려요. 때때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끔은 어려운 수련 과정에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실재 없이 뒀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열정이 발동해 태권도 5단, 검도 4단, 유도 2단을 취득했답니다.

아무튼 퇴근? 집으로 출근!



퇴근하고 집에 가면 2개월 된 딸과 2개월이 채 안된 아들이 저를 반깁니다. 신나는(?) 2차전의 시작이죠. 요즘은 '윤정호는 없다'를 되뇌며 사는데요. "예쁜 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지 하나도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딸아이의 까르르 웃음소리와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 행복감이 피로를 이긴다니까요.

윤정호 책임매니저(건축주택품질경영팀)



윤정호 책임이 전하는 육아 꿀팁

몸으로 놀아주며 근육 키우기 아이들은 역시 몸으로 놀아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몸을 쓰면서 여러 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어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 딸도 아기 때부터 제 손가락에 매달리거나, 아باك을 타고 오르는 놀이를 즐겨했어요. 2개월이 된 지금은 제가 바닥에 앉아 있으면 스스로 제 등을 타고 올라와 목마 자세로 막 있는답니다. 사진처럼요!

외출해서 힘 빼주기 필수 마음 같아선 매주 야외 곳곳으로 나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외출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가까운 공원이나 단지 내 놀이터에 자주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낮잠 자고 일어난 후에 밖에서 힘을 좀 빼주지 않으면 저녁 식사도 잘 안 하고 밤잠도 잘 안 자려고 해서 가벼운 외출이라도 꼭 하는 편입니다.

저녁 루틴 생성! 산책하며 하루 정리



특별한 저녁 일정이 없으면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인근의 수성못을 산책합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수성못까지 15분 남짓, 빠르게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걸으면 하루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던 고민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걸으면서 얻는 운동 효과는 덤, 아름다운 일몰 풍경은 더 큰 선물입니다.

전성진 책임매니저(일스타이트 황금역 1,2차)



전성진 책임이 추천하는 산책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패니 <달팽이> 가수 이직의 목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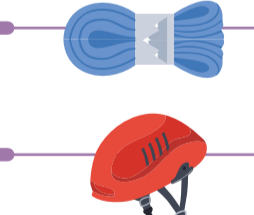
인순이 <거위의 꿈> 해가 지는 후수 산책을 걸으면서 차분하게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익숙한 노래니 아무런 생각 하지 않고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멀리 산 너머 지는 해를 보셔요.

나훈아 <테스형> 앞선 두 노래로 산책길에 감성을 담았다면 <테스형>으로 리듬 타보는 건 어떨까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속으로 따라 외치면서 스트레스도 풀어버리고요!

암벽을 오르며 느끼는 쾌감!



박중진 매니저(플랜트전기계장설계팀)



박중진 매니저가 전하는 클라이밍 팁 & 클라이밍장

나에게 맞는 종목 선택부터 클라이밍에는 '볼더링' '리드' '스피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일반인이 취미로 즐기는 건 몸에 로프를 달고 야외 암벽을 높이 오르는 '리드'와 난이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홀드를 정하고 4-5m의 실내 인공 암벽을 로프 없이 오르는 '볼더링'이에요. 특히 볼더링의 경우 문제를 풀기 전 충분히 루트를 찾고, 홀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클라이밍의 매력 포인트 같아요.

충분한 스트레칭과 휴식은 필수 클라이밍은 상체 힘을 많이 쓸 것 같지만 코어, 하체, 밸런스 공간감각 등 다양한 능력을 요합니다.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시작 전 충분한 전신 스트레칭이 필수인 데요. 운동 특성상 손목을 꺾는 경우가 많아 손목과 손가락에 테이핑 하는 걸 추천해요. 손 피부가 쉼터거나 굳은살이 생기기도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물론 부상으로 무리가 될 경우 충분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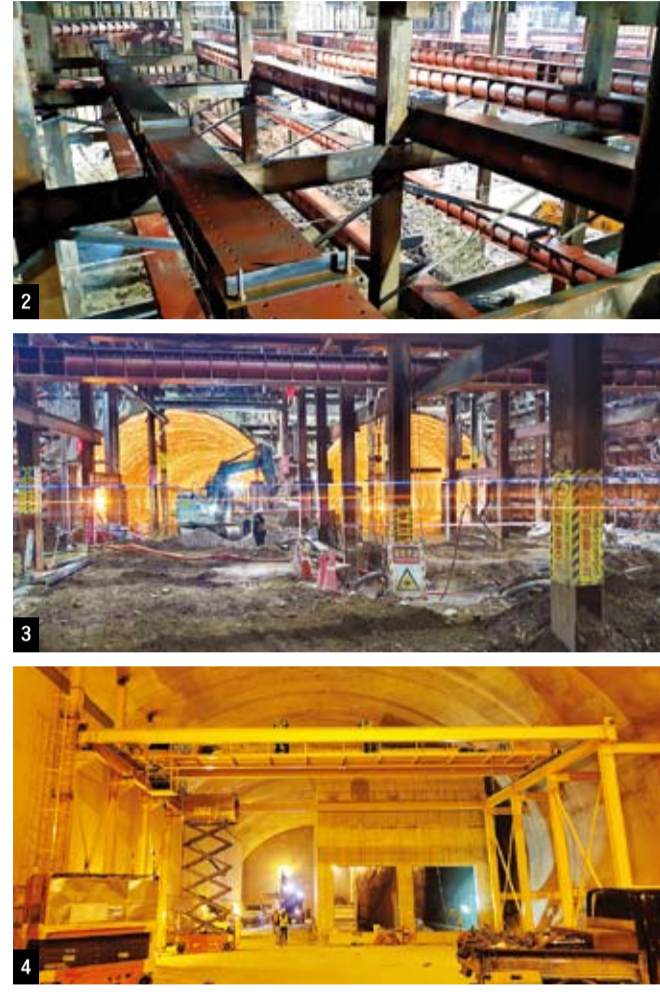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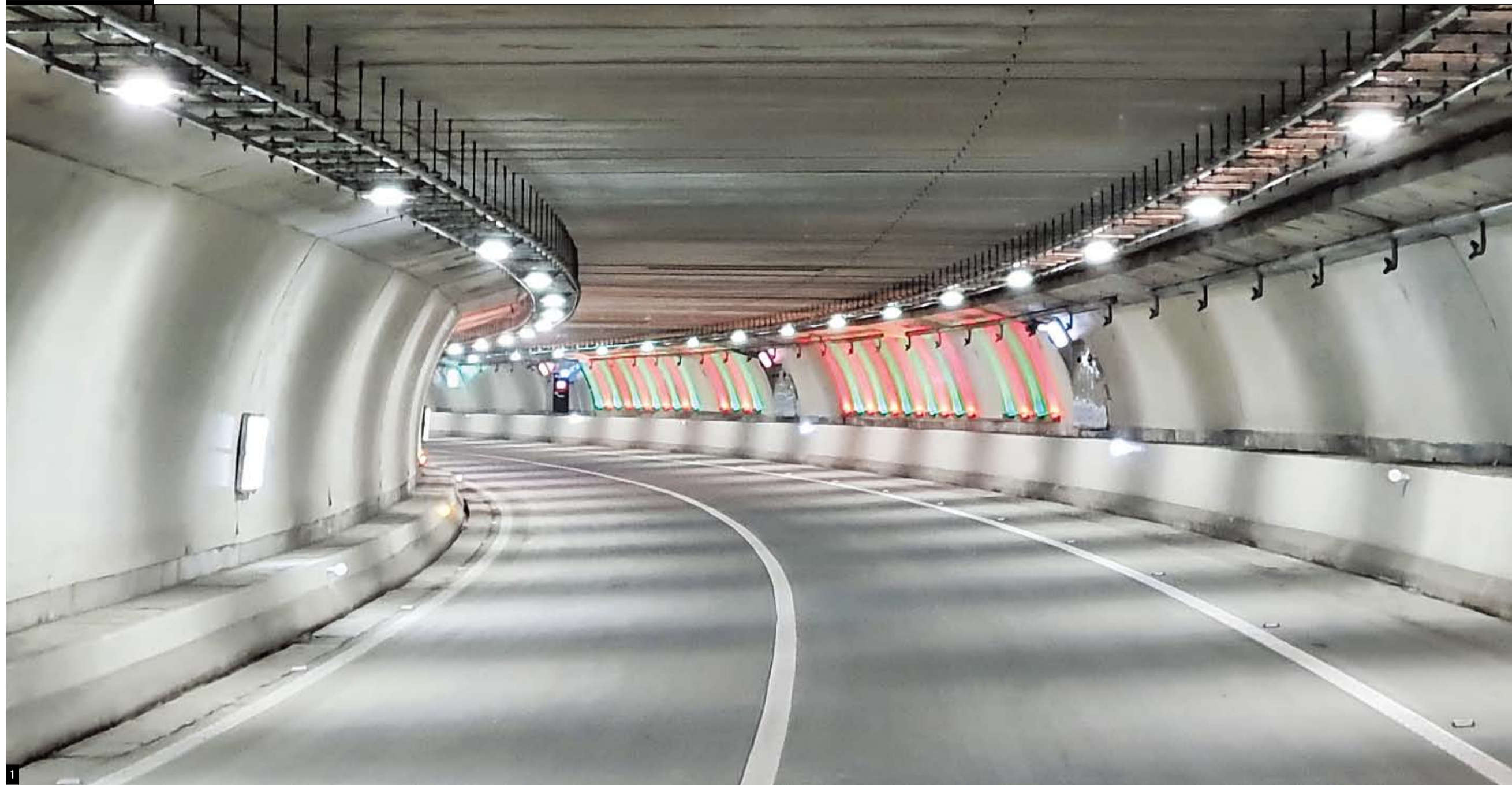
올해 5월부터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시작한 클라이밍. 이런 취미가 돼 주 3-4회 정도 즐기고 있어요. 비록 손과 발은 고통스럽지만 TOP을 점했을 때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요즘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관련 모임이 많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쯤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블라이밍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암장입니다. 색다른로 요구하는 능력치가 달라 스펙터클하게 즐길 수 있어 오토 올림피아 출신해 사채현 선수, 천종민 선수 등 유명 클라이머들이 자주 이용해 그들의 화려한 무브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여러 지역에 체인점이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보시면 좋겠어요.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0 문의 031-905-6014

맑음 클라이밍

규모는 크지 않지만 깎을 건 다 갖춘 알찬 암장으로, 체가 처음 클라이밍을 시작한 곳이기도 해요. 회원들 모두 친절하고 난이도도 적당해 이곳에서 입문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 세 개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주마다 루트가 다르게 세팅돼 매번 새로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20 문의 02-357-0305



1 개통 직전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모습. 이곳은 이제 수만대의 차량이 오가는 서울 도심지 순환선 역할을 하고 있다. 2,3 개착 구간 가시성. 4 측류팬(강기의 흐름 방향이 송풍기의 회전축과 평행한 프로펠러 팬) 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설치하는 모습.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현장

지하 80m 대심도 지하터널 ... 서울 서부권 출퇴근길이 달라졌다

현장&사람 상층 교통정체 구간인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나들목으로 가는 길. 최근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통하여 예전보다 20분가량 단축된 시간에 도착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 1공구를 준공하며 국내 최대 깊이 지어터널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완성해냈다. 글=박현희

서울 서남부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의 시작점인 금천나들목 구간이 만성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지난 9월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하면서부터다. 서울시는 이날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온라인 개통식을 열었다. 개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축하와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이상현 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의 감사 인사, 금천구·구로구 지역주민의 기대가 담긴 메시지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이상현 소장은 “현장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5년6개월간 밤낮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많은 분의 관심 속에 개통한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989년 안양천변을 따라 놓인 서부간선도로 지하 80m에 건설된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이다. 총

연장 10.33km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구 독산동 서해안고속도로로 금천나들목을 직통으로 연결한다. 이 프로젝트는 정체가 잦은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낙후된 주변 지역을 개선하고자 1994년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처음 기획됐다. 그러나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2007년 1월 민간투자(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시행 방침이 바뀌었다. 그해 12월 우리 회사 컨소시엄은 서부간선도로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15년 3월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맺고, 2016년 3월 첫 삽을 뜬 지 5년6개월 만인 2021년 9월 1일 개통에 이르렀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속도 80km/h, 높이 3m 이하 소형차 전용도로로 운영된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혹은 1.5t 이하 화물차량만이 다닐 수 있다. 통행요금은 2500원으로 유료이며, 기존 서부간선도로는 무료로 유지된다. 우리 회사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시행자로서 30년 운영 후 서울시에 소유권을 양도한다.

24시간 강정 진행-집중력 발휘에 정밀 시공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는 두 개 공구로 나

뉘 진행됐다. 총연장 10.33km 중 우리 회사는 성산대교 시점부터 약 5.2km의 지하도로를 조성하는 1공구 공사를 맡았다. 우리 회사는 지름 1.2m의 콘크리트 구조체 7116공을 삽입해 개착구간이 1km, 터널 구간이 4.194km이다. 전체 6059억원의 공사금액 중 우리 회사 지분은 38%인 2302억원으로, 착공 당시 우리 회사 국내 토목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였다.

공기 준수가 중요한 민간투자사업이기에 현장 직원들은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24시간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돌관 공사를 수행하고, 공기 단축을 위해 ▶터널 유도갱(수직구)를 통해 본선 갱 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앞서 좋은 길잡이 갱) 연장 축소 ▶수직구 슬립 폼(Slip Form-콘크리트 타설 시 단계적으로 거푸집을 올리면서 연속적으로 구조물을 시공) 공법 적용 ▶옹벽, 터널 내 격벽 등 구조물 사전 제작 등 설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일반적인 산악 터널은 암반 지반을 뚫지만, 지면으로부터 굴착이 시작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토사 지반도 파내야 했다. 현장은 터널 시점부의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고 흙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지반 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터널 시점부터 160m까지 지하 약 30m 구간에 지상 고압분사 그라우팅(Grouting) 공법을 사용했다. 그라우팅은 연약 지반에

원기둥 모양의 파이프를 박거나, 암석의 균열 틈새에 시멘트를 고압으로 분사·주입해 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우리 회사는 지름 1.2m의 콘크리트 구조체 7116공을 삽입해 지반을 강화했다. 현장 직원들은 어느 한 지점이라도 보강이 부족하면 굴착 시 지반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협력사 직원 및 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정밀 시공을 이뤄냈다. 또 인접한 안양천의 물이 터널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80m 깊이의 본선 구간에는 차수(止水) 그라우팅 기술을 적용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장은 지하수 유출 없이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안전한 지어터널-서울시 순환선 역할 기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국내 지하도로 최초로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정차 없이 제한속도 80km/h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다. 스마트톨링(카드-단말기 간 통신이 아닌 차량 번호 인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 기술이 적용된 이 시스템은 하이패스가 장착돼 있다면 정차하지 않아도 통행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유인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된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곱하게 갖추고 있다. 현장은 안전 최우선주의에 기반해 방재 1등급 시설로 설계했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와 같은 대기 중 유해 물질을 터널 내부에서 직접 정화할 수 있는 ‘바이패스(By-Pass)’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CCTV 또한 사각지대 없이 설치했다.

지하터널의 경우 작은 화재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해 50m 간격으로 배연 댐퍼(Damper), 5m마다 집중 방사가 가능한 물 분무 설비를 시공하고, 화재 발생 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도록 40개소의 피난 통로(대인용 24개소, 차량용 16개소)를 설치했다. 또한 터널 외부로 빠르게 탈출할 수 있게끔 터널 입·출구부(4개소), 수직구 3개소 및 영업소 등을 두었다.

개통한 지 보름이 지난 지금, 늘 막혀 있던 서부간선도로는 덕분에 숨통이 트인 모습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북쪽은 월드컵대교, 남쪽 끝으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서울시를 둘러싸는 순환선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구슬땀이 모여 66개월 대장정을 마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공구 현장. 국내 최대 깊이&국내 도심지 최장 지하터널로써 우리 회사 지하 공간 프로젝트의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또 하나 완성됐다.

국내 도심지 최장 대심도 장대터널 준공이라는 프라이드!



지난 9월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온라인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준공했기에 현장 직원들의 자부심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채진욱 책임(이하 채진욱) 안녕하세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무로 근무 중인 채진욱 책임입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개통식이 KTV 국민방송과 유튜브로 방영됐습니다. 개통 시간인 정오가 되기 전, 지하도로를 통과하기 위해 일렬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남다른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순재 팀장(이하 홍순재) 현장 안전관리팀 홍순재 팀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9월 1일 낮 12시, 시민들이 우리가 시공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통과했을 때 무척 뿌듯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훗날 자녀들에게 “아빠가 만들었어”라고 너스레를 떨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겼네요(웃음).

공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여러 역경을 이겨냈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김재영 매니저(이하 김재영) 2016년 3월 사업수행팀으로 입사해 터널 및 개착 구조물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반 개량 구간을 굴착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터널 시작점부터 160m 구간은 심도가 낮고 지반이 약해 그라우팅을 활용한 지반 개량 후 굴착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폐기물인 굴착토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공정 진행이 더뎠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공정 진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수시로 방문해 폐기물 수거를 독려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합심한 덕분에 적기에 굴착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욱 매니저(이하 윤승욱) 2019년에 입사한 사업지원팀 윤승욱 매니저입니다. 현장은 공기 준수를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제 작은 실수가 행정처리 지연과 같은 공정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많은 선배님과 동료들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홍순재 지하 80m에 통신체계를 갖추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통신사들도 정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전 근로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수도 없었기에 가설 중개망 설치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했는데요. 필요성을 인식해준 통신사의 결단으로 전 구간 중계망이 깔리며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면을 빌려 고생해준 현장 직원들과 통신사 관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5년6개월간 동고동락한 현장 직원들에게 한 마디.

채진욱 국내 도심지 최장 대심도 장대터널(1km가 넘는 긴 터널)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회사가 해온 수많은 난공사 중 눈에 띄는 포트폴리오로 한자리 차지해 무척 기쁩니다. 현장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해준 회사에 감사합니다. 저를 제외한 세 직원 모두 회사 생활의 첫 시작이 우리 현장인데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길 바라며, 다른 근무지에서 또 한번 만나 알겠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영 기념비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유사 현장을 진행할 때 선배님들에게 배운 모든 것이 좋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욱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력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1공구 현장 파이팅!
홍순재 현장은 2017년 도심지 현장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밀폐공간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하이오스(HIoS)’가 정착하기 전이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우리 현장이 하이오스의 안정화에 크게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회사가 시범시스템을 쓰던 현장은 스토리를 만듭니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동료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본사에서도 66개월간 현장에서 살아 숨 쉬었던 서부간선지하도로 현장 직원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터널이 완성되기까지... 그 여정을 엿보다

2017-2019 2019-2020 2020 2020-2021 2021 준공

시점부 본선 터널 굴착. 굴착한 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강지보재 설치. 갱 내 차수 그라우팅 모습. 방수 시트 시공. 터널 굴착면을 매끄럽게 하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포장. 환기방재 시스템 풍도 슬래브 시공. 터널 내 조명 도장. 완성된 터널 모습.

중동에서 부는 ESG 혁신의 바람

ESG 칼럼 중동에서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국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인 이들은 지난해 유가 폭락과 팬데믹을 겪으며 ESG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석유에 의존하는 기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금융·물류·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으로 경제를 다각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아시아, 미국, 유럽 등에서 ESG 가치를 높이 보는 투자기업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 다각화를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요즘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돈은 ESG 기준을 따른다. 중동에서 ESG 트렌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글=선한결 <한국경제신문> 기자



신재생에너지 투자 앞세운 'E' 계획 가속

중동 각국의 ESG 트렌드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환경 분야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UAE 등은 앞다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내놓고 있다. 석유로 번 돈을 저탄소 투자 프로젝트에 쏟는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저탄소 기조를 이끌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월 '사우디 녹색 계획'을 공표했다. 친환경 탄소 기술을 활용해 사우디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사우디 전기 생산량의 최대 50%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 내에 나무 100억 그루를 심는 방안도 추진한다.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해 서울의 43.8배 규모(2만6500㎢)로 조성 예정인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에는 세계 최대 규모 녹색수소(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들이기로 했다. 수소에너지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비교적 적게 발생해 차세대 주요 친환경 에너지로 꼽힌다. 사우디의 목표는 네옴에서 2025년부터 녹색수소를 일평균 650t 생산해 이 중 상당량을 수출하는 것이다. 수소에너지 650t은 수소버스 약 2만 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올 초엔 왕세자의 측근인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장관이 "사우디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제2의 독일'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분야를 사우디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탄소중립(넷제로) 기조 등에 발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사우디는 주요 구간에 아예 차가 다니지 않는 신도시도 조성한다. 네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신도시 '더 라인'에서는 직선 길이 170km를 벨트 구역으로 정하고, 이 일대에는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차로는 아예 만들지 않는다. 학교, 병원, 레저 시설은 여럿 들어주거단지에서 도보 5분 이내로 편의·생활시설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국영 사우디아람코를 통해서도 수소사업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수소에너지 유통 방법 대안으로 꼽히는 청색암모니아를 세계 최초로 수출했다. 생산 라인에선 수소 관련 시설을 늘리고 있다. 다운스트림(정제·석유화학) 공정 부산물인 부생수소(회색수소)로 수소사업 마중물 역할을 하고, 탄소 포집·저장 시설을 확대해 청색수소(블루수소)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UAE 양대 토착국 중 하나인 아부다비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거 투자하고 있다. 올 초 기준 운용자산 규모가 2310억 달러(약 270조원) 이상인 무바달라 국부펀드

와 국영 석유기업 ADNOC가 앞장선다. 이 두 곳과 국영 지주회사 ADQ가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맺고 UAE에 수소에너지 생산기지를 세울 계획이다. 전력, 모빌리티, 제조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할 로드맵도 개발한다.

이들이 ESG의 'E'를 실현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 모두를 위해서다. 일단 친환경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당장에도 이득이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방식으로 청색수소 생산량을 늘리면 최종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저탄소 석유'를 시장에 내놓는 식으로 타 산유국에 비해 석유제품을 차별화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ESG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금융기업의 투자를 꾸준히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해 석유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세계 에너지 시장 패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 제도 폐지

사회적(S) 측면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는 외국인 근로자 차별 제도로 알려졌던 '카팔라'를 지난 3월 중순 폐지했다. 정부의 새 노동개혁안을 통해서다. 카팔라 제도에 따르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비자 발급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한다. 고용 기간 채우부터 이직, 이사, 출국 등이 모두 고용주 마음에 달려 있었다. 이를 약용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나왔다. 기업이 가혹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거나 확대를 받는 경우도 근로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카팔라 제도가 폐지되며 사우디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대폭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노동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면 사우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외국인 비율이 38%에 달하는 사우디가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가 그만큼 용이해져서다.

여성 임원 등용도 가속

기업의 지배구조(G)를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나왔다. UAE는 지난 3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여성 임원을 최소 한 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발효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동권에서 혁신적인 조항으로 평가받았다. 압둘라 빈 투크 UAE 증권거래소(SCA) 이사회장 겸 경제장관은 조항 발효 당시 "최소한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UAE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이사진의 성별·인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CA는 2019년 말부터 UAE에 상장한 공공주식회사에 대해 이사회 2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영국 런던 증시 상위 350개 기업(FTSE 350), 미국 나스닥 등이 내세운 목표와 비슷하다. 20%를 채우지 못한 기업 이사회는 연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지 언론 <The National>은 "UAE의 상장사 중 26%가 여성 임원을 두고 있지만, 상장사 임원직 총수 대비 여성 비율은 823명 중 29명으로 3.5%에 그친다"며 "SCA가 최근 여성 임원 관련 규정을 내놓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AE 정부가 ESG를 적극 강조하자 주요 기업들도 여성 임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UAE 매체 <Zawya>에 따르면 아부다비 국영 석유기업 ADNOC은 이사회 22명 중 17명이 여성이다. ADNOC은 지난해엔 여성 기술자를 1148명으로 늘렸다. 전년 대비 90% 급증한 수치다.

ESG 열풍, 협업으로 이어져

중동의 ESG 열풍은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가 올해 초 중동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코로나19 이후 기업 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ESG 경영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Initiative·국민발안제)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 분위기에 맞춰 중동 현지에서 ESG 경영 사례를 늘리고 있다. 글로벌 카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빨대 없는 아이스 음료 잔을 중동·북아프리카 최초로 선보였다. 이후 UAE에서 영업하는 카페 여러 곳에서도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는 캠페인이 일었다. 대형마트 카르푸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며 재활용 장바구니를 여러 종류 내놨다.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ESG 프로젝트와 협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 에어프로덕츠는 사우디 에너지 기업 ACWA파워와 최근 합작기업을 세웠다. 60억 달러(약 6조7000억원) 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세우기 위해서다. 독일 지멘스에너지는 UAE 아부다비와 함께 UAE 마스다르 신도시에 녹색수소 시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영국 금융 기업 바클레이스는 "중동에서 ESG 중심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며 "ESG 목표를 기업 전략에 잘 융합한 기업에는 성공 기회가 그만큼 커졌다"고 분석했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워지는 '센스가득 추석 선물'

문화칼럼 선물을 보면 시대를 알 수 있다. 특히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을 선택하기에 시대상이 잘 반영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추석 선물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리고 올해, 몸은 가까이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추석 선물은 무엇일까. 글=황정은 자유기고가

선물의 변신은 무죄! 시대별 인기 추석 선물
광복 후 한국전쟁을 겪은 1950년대는 모두가 먹고살기 힘들어 음식을 나누는 게 가장 큰 미덕인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명절에는 쌀과 달걀, 돼지고기 등 귀한 음식으로 마음을 표했다. 1960년대는 경제 개발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명절 선물'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해 설탕과 밀가루, 조미료 등 삼백(三白) 식품이 최고급 선물로 부상했다.

1970년대,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며 선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의 선물이 생필품 위주였다면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한 상품이 등장한 것이다. 화장품과 장갑, 스타킹, 넥타이부터 고급 주류까지 '특별한 날' 주고받는 아이템이 각광받았다. 생활 수준이 점차 높아진 1980년대에는 선물도 더욱 고급화됐다. 고기뿐 아니라 커피와 햄, 참치, 참기름 등의 식품 그리고 넥타이, 양말, 지갑 등의 의류 잡화가 고급 세트 구성으로 출시됐다. 올림픽 이후 1990년대는 경제 발전도 더욱 빨라져 선물세트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과 송이버섯, 꿀 등 고급 건강 선물세트가 인기였다. IMF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기라 백화점 상품권도 많이 주고받았으나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속을 챙긴 알뜰 선물세트가 등장했다.

2000년대에는 '웰빙'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며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효소, 올리브유, 식초 등의 선물이 주목받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영향으로 망고, 키위 등 농산품과 키크랩, 연어 등의 해산물도 선물로 큰 인기를 누렸다. 가족과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진 2010년대 이후에는 홈카페 패키지, 아웃도어 상품 등 삶의 취향을 반영한 상품이 돋보이며 추석 선물의 다채로운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있는 요즘. 환경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프라이빗한 활동을 선호하거나 실내 생활에 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이 늘었다. 올 추석에는 어떤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



추천! 추석 선물에 담아보는 센스 한 스펀



추석에는 호캉스 '추(秋)캉스 패키지'

'추석 호캉스'의 줄임말인 일명 '추캉스' 패키지가 인기다. 지난 설에 비해 귀성 관련 방역지침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분리된 휴식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호텔업계에서는 다양한 패키지를 내놨다. 롯데호텔은 LPGA 프로와의 라운딩, 원포인트 레슨 이벤트 응모권과 함께 각 체인별로 명절을 즐길 수 있는 선물을 구성한 '홀리데이 에피소드' 패키지를 준비했다. 서울신라호텔은 명절 연휴를 정찬과 공연, 독서로 고급스럽게 보낼 수 있는 '고메 홀리데이' 상품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객실에서 프라이빗하게 나만의 영화관을 즐길 수 있는 '호텔극 시네마 패키지 with CGV'를 제공한다. 워커힌 또한 야외 피크닉 공간 포레스트파크에 숲놀이, 투호 등 전통 놀이 프로그램을 포함한 추석 패키지 2종을 선보여 프라이빗하게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오붓한 캠핑을 응원하는 '캠핑 밀키트 세트'

귀성도 어렵고, 호캉스는 부담스럽고, 집에만 있기는 서운할 때 캠핑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캠핑족을 위한 밀키트 세트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은 단연 스테이크 세트. 특히 토마호크와 티본스테이크 등은 직화로 굽기 좋아 수요가 많다. 이외에도 '돈육 밀키트 세트' '바비큐 백립&소시지 세트' '해산물 세트' 그리고 함께 걸들일 수 있는 와인 혹은 굿즈 세트를 선물한다면 당신은 '캠핑족 취향 좀 알아주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조금씩 신선하게 즐기는 먹거리 '구독형 선물세트'

보통 명절에 선물하는 한우·청과 세트는 양이 많아 한 번에 먹기가 어렵다. 이 경우 냉장고 장기 보관이 불가피한데, 신선도가 떨어져 선물 받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많았다. 이제는 이런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선물도 등장했다. 바로 '선물세트 정기 구독권'이다. 정육 및 청과 제품을 수회에 걸쳐 나눠 받아볼 수 있어 1인 가구에게도 유용하다. 롯데백화점의 구독형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정육 제품은 4회, 청과 제품은 2회에 나눠 수령할 수 있다. 사용 기간 역시 10월 말과 11월 말로 넉넉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여유로운 선물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가족과 오랜만에 한 잔 어떠세요? '술 선물세트(feat. 담금주 키트)'

명절에 술이 빠지면 섭섭한 이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집에서 혼술을 즐기거나, 적은 인원이 홈파티를 여는 문화가 많아지면서 술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선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술은 단연 위스키와 와인으로, 위스키는 100% 보리를 원재료로 사용한 '싱글몰트 위스키', 옥수수를 주재료로 한 '버번위스키' 등이 인기가 높다. 와인은 세대를 막론하고 다양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랑스산 내추럴 와인 세트, 이탈리아산 돈나 푸가타 세트, 미국산 텍스텍북 세트 등이 있다. 이외에도 트렌디한 발효주의 인기가 높으며 요즘은 담금주 키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딸기주, 코코넛파인주, 커피주, 진저레몬주 등 다양한 키트로 직접 술을 만들어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반려동물도 소중한 가족이니까 '펫 용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추석 선물로 다양한 펫 용품도 주목받는다. 한가위를 맞아 특별 간식을 주문하는 손길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방부제와 첨가물 등을 넣지 않은 육포, 과자, 츄르 등 수제 간식의 인기가 높다. 연휴 기간에 홀로 있어야 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자동 급식기, 함께 이동할 반려동물을 위한 편안한 카시트와 반려동물 한복 등으로 사람도, 반려동물도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를 선물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코로나 방역 키트'

가족과의 안전한 만남을 위해 코로나 방역 키트가 '코스국'의 새로운 추석 선물로 떠오르고 있다. 손소독제와 KF94 마스크는 물론 소독 물티슈, 체온계까지 하나의 구성으로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절 연휴 이후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부디 건강한 나날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을 담기에 제격이다.



tvN의 간판 예능 <유퀴즈> 메인 PD 김민석
‘웃기지 않아도 됩니다’
유재석은
다 계획이 있었다!

피플인사이드 <유퀴즈> 제작진은 어떻게 초기의 부진을 딛고 유퀴즈를 tvN의 간판 예능으로 만들어냈을까. 김민석 PD를 만나 ‘유퀴즈팀이 일하는 법’을 물었다. 김 PD는 “<유퀴즈>의 성과는 24명에 이르는 연출진과 작가진, 총 100여 명 스태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출처=중앙일보 폴인 인사이드 / 사진=중앙디비



tvN <유 퀴즈 온더 블럭>(이하 ‘유퀴즈’)은 예능과 교양 사이 독보적인 포지셔닝에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진행자(유재석)는 TV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된 건 아니었다. 여러 시즌을 거치며 특히 코로나 이후 프로그램 포맷을 바꾼 뒤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Q 처음부터 ‘대박’은 아니었다고요.
 론칭 초기에 ‘국민 MC 유재석의 tvN 첫 진출작’으로 회사 내·외부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 저는 tvN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7년 차 PD였는데, 다행히 베테랑 이만주 작가와 함께 만들게 됐죠. 시즌은 ‘유재석과 조세호의 사람 여행’이란 콘셉트로 주로 거리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시민과 퀴즈를 푸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으며 찍었는데 시청률이 저조했죠. 시즌이 끝나고 프로그램의 존재를 결정짓는 회의가 열렸어요(웃음).

Q 다행히 그때 살아남았군요.
 회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시즌2에서는 퀴즈보다 출연자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지, 누가 나올지 모르는 오픈 포맷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차별 기획을 없애기 위해 출연자를 미리 섭외하는 특집 편을 기획했는데, 이때 자기님(유퀴즈 출연자와 시청자를 가리키는 말. 유재석은 큰 자기, 조세호는 아기자기 혹은

작은 자기라고 불린다)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청률이 문제였습니다. 시즌2도 그렇게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Q 코로나 이후 시청자 반응이 달라졌나요?
 시즌3도 처음부터 잘되진 않았어요. 확진자가 한창 나오던 지난해 2월에 시작했거든요. 매일 회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계속 의견이 오갔어요. 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담아낸다’는 프로그램의 본질은 유지하되, 콘셉트·방식·장소 등은 상황에 맞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거리에서 무작정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 모든 출연자를 섭외하기로 했는데, 초반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 ‘섭외를 하려면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걸 팀원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이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시청률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Q 섭외 비결은 뭔가요? 얼마 전 배우 신하균·조승우씨도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시즌3 이후 제작진 입장에서 체감하게 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 많은 분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선순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컴백 방송은 유퀴즈에서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연예인 출연자의 경우 ‘노련한 연

예인’의 모습보다는 ‘날것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려고 해요.

Q ‘유퀴즈스러움’은 뭘까요. 사람들이 왜 유퀴즈에 호응한다고 보세요?
 촬영장에서 유재석씨가 출연자들에게 항상 “웃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건네요. 저희는 정교하게 노력해서 짜인 웃음이 아니라 출연자의 매력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웃음을 지향합니다. 촬영 전 정말 긴 시간 동안 출연진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섭외 형식으로 바뀐 후에는 작가들의 업무 자체가 달라졌어요. 출연자의 나이가 40세라면 40년 인생을 알아야 해요. 출연자의 삶에 나를 꼭 담겠다고 여겨질 때까지, 10일 동안 그분이 쓴 책이나 필모그래피 등 자료를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긴장을 많이 하면 한 대로, 긴장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촬영해요.

또 PD가 여럿이지만 출연자 한 명의 편집은 PD 한 명이 담당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같은 시점에서 왜곡 없이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짓궂은 자막을 쓰더라도 출연자를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담고요. 사람들이 ‘유퀴즈’를 좋아하는 건, 이런 자연스러움과 배려가 느껴져서 아닐까요?

Q 제작진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14명의 PD와 10명의 작가진이 함께 만들고 있고, PD팀은 절반이 1~2년 차입니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실행력이 빨라요. 2개 팀으로 나눠서 격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Q 일하는 방식이 궁금해요.
 토크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PD들이어서 그런지, 다들 토크를 엄청 좋아해요(웃음). 수시로, 산발적으로, 기약 없이 얘기합니다. 농담부터 편집 과정의 고민,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 등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잡담이죠. 예를 들면 “다음주는 ‘한글날’ 특집이니까 유퀴즈 로고에서 이음을 세종대왕 얼굴로 해볼까’라는 식인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100명 중 5명이 좋아해 주면 다음주에도 해보자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반응이 적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더라고요.

Q 유퀴즈팀에게 유퀴즈가 어떤 곳이 되길 바라나요.
 ‘좋은 연수원’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국에는 공식화된 연수 시스템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의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저년차 PD와 작가들에게 일터이자 자신을 단련시키는 장이 되죠. 유퀴즈 역시 나를 소모하기보다는, 내 성장을 고민하는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각 출연자를 다른 PD가 담당하다 보니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실 때 통일성이 떨어지거나 매끄럽지 않은 면도 있어요. 예전에는 한 회차가 한 사람이 편집한 것처럼 몰 흐르듯 흘러가길 바람직도 있습니다. 지금은 왼쪽 상단에 ‘유퀴즈’라고만 떠 있으면 톤 앤 매너의 통일은 충분하다고 보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후배 PD들에게도 “나를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네 말맛에 맞춰서 네 목소리를 주제 안에 담아줘”라고 얘기합니다.

Q PD님에게 유퀴즈란?
 매일을 살아내는 아주 작은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어요. 음식점으로 치면 거창한 코스 요리는 아니지만 매일 문이 열린 부대찌개집 같은 곳이지요(웃음).



잡학다식 상식퀴즈 한가위

가배절, 한가위, 가윗날 등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 추석. 우리나라 명절 중 가을 달빛을 즐기기 가장 좋은 날을 맞이해 한가위에 대한 기초 상식을 쌓을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다. 가족과 삼삼오오 모여 추석에 대한 퀴즈를 함께 풀어보자. 글=강은비



성명	
사원번호	

OX 퀴즈

1.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다.
2. 추서에 먹는 대표 음식 '송병(松餅)'은 '토란국'을 말한다.
3. 우리나라 제사상에 놓는 네 가지 기본 과일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홍동백서'다.
4. 추석날에 입거나 신는 새 옷이나 새 신발 등을 '추석빔'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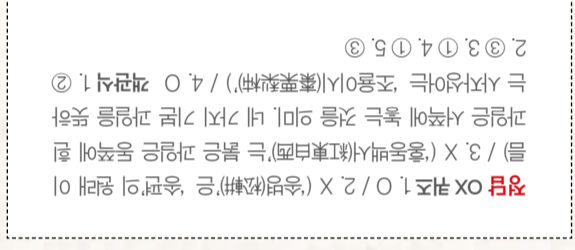
주관식 ※QR코드 퀴즈!

1. 음력 팔월 보름의 좋은 날을 의미하는 추석의 사자성어는? (초성힌트 ㅈㅅㅈㅅ)
2.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놀이로 아름다운 율동미가 넘치는 이 민속춤의 이름은? (초성힌트 ㅊㅊㅅㅇㄹ)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객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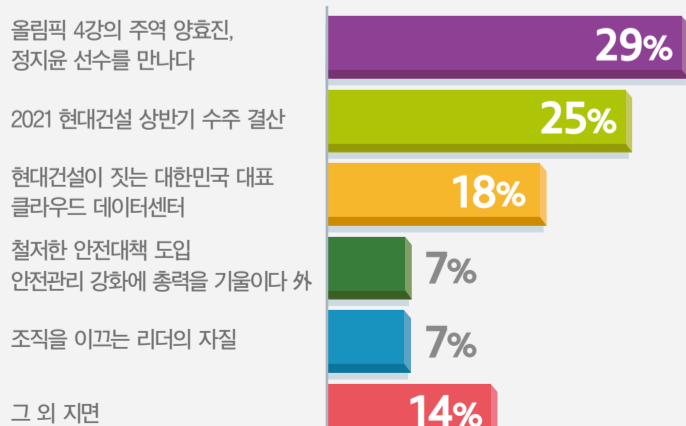
1. 추석(秋夕)의 의미는?
① 가을의 바람이 가장 선선한 밤 ②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③ 가을의 별빛이 가장 좋은 밤
2. 추석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 아닌 것은?
① 가의 ② 중추(仲秋) ③ 구정
3. 추석은 한가위로도 불리는데, 한가위의 '한'은 '크다'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가위'는 무엇을 뜻할까?
① 가운데 ② 달(月) ③ 저녁
4. 한가윗날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수숫잎으로 거북 모양을 만들어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는 민속놀이의 이름은?
① 거북놀이 ② 굿놀이 ③ 마당놀이
5. 한가위는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두 팀으로 나뉘어 베를 짜는 시합인 길쌈놀이 가배(嘉俳)에서 유래한 말이다. 길쌈시합 후 진 팀과 이긴 팀 모두 보름달 아래에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돼 있을까?
① 삼국지 ② 삼국유사 ③ 삼국사기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404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 # 친환경 소재 활용 및 재활용 방법
- #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리스트
- # 현대건설 배구단 소식
- # 해외 현장 직원들의 사는 이야기
- # 전국 가을 맛집 지도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상단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설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10월 8일(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상품 소정의 상품(5명)



한가위엔 한가하게 걸어서 고궁 속으로

여느 명절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멀리 이동하기 힘든 추석이다. 그러나 연휴에는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밤. 가족과 추석 분위기도 즐기고 여유까지 갖고 싶다면 도심 속 궁궐을 거닐어 보자. 주인이 사라진 옛터의 고궁은 가을의 정취를 머금고 새로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글=김보나 / 사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수원문화재단, 경주시 관광자원 영상이미지

조선왕조의 상징,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 조선 태조가 한양에서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처음 지은 궁궐이다. 조선의 상징으로 여겨져 역사의 부침에 따라 유난히 소실과 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의 건축은 여느 궁궐보다도 품위 있다. 입구인 광화문을 지나 흥례문과 근정문, 근정전에 이르는 핵심 공간은 대칭적이며 엄숙하다. 근정전 뒤로는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 후원 야미산, 서재와 정자 등이 이어진다. 경복궁의 후원을 대표하는 경회루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목조건물로 임금이 연회를 열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다. 후원 가장 안쪽에 자리한 향원정은 보다 아늑하고 아기자기하다.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입장 마감 오후 5시), 매주 화요일 휴궁



가장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의 궁궐 중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이 거처했던 궁으로, 1398년 왕자의 난을 일으킨 태종이 아버지가 지은 경복궁을 두고 1405년에 새로 지은 궁궐이다. 경복궁과 창덕궁이 조선의 대표 궁궐로 손꼽히며 비교되는 데에는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부자 간의 애증의 역사도 한몫한다. 경복궁은 건물 배치가 직선·대칭적인 반면, 창덕궁은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뤄 자연스럽게 건물을 배치해 비정형 조형미를 지닌다. 역사적·건축적 가치와 후원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창덕궁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 공간 미학의 정수로 꼽히는 후원은 창덕궁 관람의 백미다.

|관람 시간| 창덕궁 오전 9시~오후 6시(입장 마감 오후 5시), 후원 오전 10시~오후 5시30분(입장 마감 오후 4시, 별도 예약 필수), 매주 월요일 휴궁

근대 역사 격변의 산증인, 덕수궁

덕수궁은 정릉동 행궁에서 경운궁으로, 이후 1907년에 고종의 국호를 탄 덕수궁으로 개칭됐다. 고종이 근대화를 추구하며 도입한 서양 건축 양식 덕분에 궁궐 풍경은 매우 이국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현재 대한제국역사관으로 사용되는 석조전. 보통 궁궐에서는 왕이 업무를 보는 정전(正殿)과 신하를 만나던 편전, 잠을 자던 침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석조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궁처럼 모든 기능을 갖췄다.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정관헌은 나무를 서양식 기둥처럼 사용하고 포치(Porch, 출입구 위에 설치해 비바람을 막는 작은 지붕)를 두르는 등 독특한 모습을 띤다.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9시(입장 마감 오후 8시), 매주 월요일 휴궁



©정민준(2019 수원화성 UCC 사진 공모전)

한양의 범궁 못지않은 화성행궁

전국의 행궁 가운데 화성행궁은 규모나 격식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곳이다. 정조가 1789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수원에 행궁을 짓기 시작해 1796년에 완공됐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치러진 봉수당,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에도 훼손되지 않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낙남헌이 대표적 건물이다. 화성행궁을 둘러보려면 수원화성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수원화성은 당대에 동원 가능한 모든 기술을 집약해 만든 성곽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연중 무휴)



경주야경 제1의 명소, 동궁과 월지

경주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궁궐 유적인 동궁(東宮)과 월지(月池)는 여행객은 물론 경주 시민들도 즐겨 찾는 '야경 맛집'이다. 안압지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발굴 조사를 토대로 2011년 동궁과 월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 때인 674년에 연못인 월지가 조성됐고, 삼국통일 이후인 679년에 신라의 태자(왕자)를 위한 동궁이 지어졌다고 전한다. 동궁과 월지의 조경은 지금 보아도 뛰어나다. 동서의 길이 약 200m, 남북의 길이 약 180m 규모의 월지는 남서쪽 둘레는 직선인 데 반해 북동쪽 둘레는 구불구불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못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동궁 내 전각의 이름을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각', 임해전이라 지었다. 임해전은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외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연회장이나 회의장 등으로 이용됐으며 신라의 희비를 함께했던 역사의 주요 무대였다.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입장 마감 오후 9시30, 연중 무휴)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실내관람과 해설이 중단된 곳이 대부분이므로 필요한 경우,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계절과상황에따라개장시간이달라질수있다.
- *한복입장시 무료관람이가능하니, 한복착용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서확인해보자.
- *추석연휴기간(9월20일~22일)에4대궁과중요, 조선왕릉을개방한다. 다양한행사도 함께준비돼있으니일정을확인해보자.